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6월 후원미사는 18일, 7월 후원미사는 16일, 8월 후원미사는 20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8년 4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28,434,619	전월이월금	2,453,689
지 로	2,610,300	우리은행	13,245,800
국민은행	4,996,000	하나은행	1,026,140
조흥은행	135,010	신한은행	1,145,120
외환은행	602,500	제일은행	190,060
농 협	1,260,000	기업은행	740,000
우 체 국	30,000	교구보조	-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벳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2,8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3,450,000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12,134,619	운영비 등
지출 총액	28,409,619	잔액(이월금)	25,000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8. 5 / 제23호

펴낸날 2018. 5. 21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즐거운 중에도 주님을 섬겨리

자연이 푸르름으로 녹아드는 5월입니다. 생명이 활기를 찾는 5월은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달입니다. 이 특별한 달에 후원자님과 그 가정에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모님의 전구가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의 중간을 시작하면서 많은 생각에 무겁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요즘 신문에서 특별 기획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올해 2월까지, 만 18세 미만 미등록이주아동은 2,895명입니다. 하지만 단속이 두려워 출생신고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이주아동은 약 2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무국적자로 실제로는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투명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동의 가정은 대부분 경제적인 여건으로 부모가 맞벌이를 합니다. 그로인해 보육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주아동 10명중 3명은 어린이집의 입소를 거부당했다는 조사서도 있습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도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미등록이주아동은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이지만 자진출국을 하려해도 범칙금을 납부해야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에 몇 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 규정이 바뀌거나 삭제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과 규정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이주민 사목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현실에 맞닥뜨릴 때 저는 무기력해집니다.

지난해 저희 이주사목위원회는 그동안 미등록으로 운영하던 마고네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하여 정식등록기관이 되었습니다. 법률정책상 아동 보호시설은 신고의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공부방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함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등록을 마치고 정책에 맞추어 행정·회계·사업계획 등 체계적인 서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기관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는 공부방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주사목위원회는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이주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작한 일인데 미등록이라고 그들을 받게 되면 행정적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니 어이가 없고 또 무기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에 대한 비유에서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마태오18:5)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고 보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더욱 더 보호하는 것이 교회의 정신이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후원회원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본래의 뜻을 잃지 않고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생기발랄한 5월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을 받아 신앙의 생기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자님과 그 가정에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성모님의 푸른 오월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김 평 안 마르코 신부

공동체 소식

사랑의 집 소식*

복음화국 이주민분과에서는 사랑의 집에서 생활한 퇴사자 세 가정과 현재 입소 중인 두 가정에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29일에 복음화국 이주민분과 주관으로 하는 '제3회 이주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한마음 축제'에 퇴사자 한 가정(3명)과 현재 입소 중인 한 가정(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으로 십자가 목걸이 만들기, 포크댄스, 목걸이 만들어 마니또에게 선물하기, 식사 및 나눔, 소감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에 처음 참여해 보는 이 두 가정은 어린이날을 맞아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상호문화센터 소식*

상호문화센터에서는 구청 공모사업인 '문화로 배우는 베트남어'라는 프로그램을 매주 목요일 오후에 두 시간씩 노동사목회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지역사회 주민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베트남 문화와 접목된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의 문화의 소중함을 알고 존중하며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경찰박물관 견학



▲ 묘종 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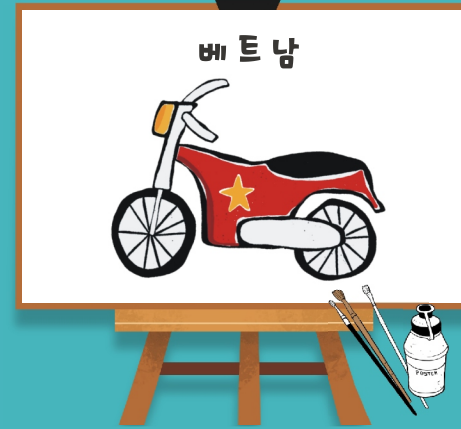
▲ 벚꽃꾸미기

위원회 소식*

이민의 날 맞이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제10회 이주민 축복 나눔 행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이주민 축복 나눔 행사가 올해로 10회를 맞이합니다. 이번 행사는 5월 27일(일) 오전 11시에 동성고등학교 강당과 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1부 국가별 공연을 시작으로 제2부 국가별 음식 나눔, 제3부 파견미사(염수정 추기경님 주례)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온 이들이 타국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후원회원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알림 교통수단 1편



베트남의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입니다. 베트남 인들은 거의 한 가구당 오토바이를 한 대씩 소유하고 있으며 교통법과 신호체계는 오토바이 위주로 정착된 것들이 많습니다. 도로 위에 자동차와 오토바이 비율이 3:7 정도일 만큼 애용하는 교통수단이며 오토바이 택시를 '싸옴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버스에 안내원이 존재하는데 버스요금 받고 잔돈 거슬러주는 일 등을 합니다. 노선이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인들은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씨클로는 세발다리 자전거이며 앞에 사람을 태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민들이 자주 탔던 교통수단이었지만 현재는 짐을 옮기는데 활용되거나 관광지 투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몽골 시내를 다니는 교통수단들에는 버스, 택시, 미크로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전기선을 이용해 다니는 전기 버스로 전기선을 따라 가면 어디서든 전기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일반버스 탈 때 한국에서는 버스 앞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내리는데 몽골에서는 뒷문(중간 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내립니다.

택시는 노란색과 흰색택시가 있는데 이 택시들은 회사 택시이며 개인차량을 개조하여 택시로 운영하는 개인택시도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길가에서 있으면 일반 차들이 와서 타라고 하는데 이런 차들이 개인택시입니다.

'미크로'라는 몽골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봉고버스는 몽골의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버스보다 빠르고 택시보다 저렴해서 몽골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몽골에서 봉고차를 본다면 80%가 미크로라고 생각하며 됩니다. 12인용 봉고에는 운전자 한 명과 차장 한 명이 타는데 버스 정류장에 설 때마다 차장은 돈을 받고 문을 열어줍니다.



지프니, 트라이시클, 지하철(LRT&MRT), 택시, 버스를 볼 수 있는데 지프니는 필리핀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교통수단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됩니다. 한국의 교통수단과 비교했을 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섞어 놓은 운송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량 뒤쪽을 개조하여 사람들이 오고 가는 통로를 만들어 있을 수 있는 좌석으로 만들었다는 점과 운전자에 취향에 따라 디자인되어 또 다른 재미를 준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트라이시클은 지프니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보통 오토바이 옆에 사이드 카를 단 것인데, 두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지프니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디자인이 가지각색이며 정해진 노선이 없으나 다닐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구석구석 다닐 때는 트라이시클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